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3. 17.(목) 16:00 | 배포 일시 | 2022. 3. 17.(목) 09:00 |
| 담당 부서 |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| 책임자 | 과장 진재영 (044-203-335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임희오 (044-203-3352) |

“찾았다! 오류”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, 우리가 찾아낸다

- 3. 17.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비대면 개최, 단원 70명 활동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) 해외문화홍보원[원장 박명순, 이하 해문홍(KOCIS)]은 ‘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(이하 바로알림단)’이 3월 17일(목)에 비대면으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‘바로알림단’은 해문홍(KOCIS)의 ‘한국바로알림서비스*’ 사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,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 알림단이다.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단원을 구성한다.

* ‘한국바로알림서비스’(www.factsaboutkorea.go.kr):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신고하고, 해문홍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비스(한국어 및 10개 외국어 지원)

이번 제14기 단원으로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, 재외동포, 유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70명을 선발했다.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활동하게 된 김민혜 단원은 “13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점을 알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꾸준히 확인하며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.”라고 밝혔다. 베트남에서 유학 중인 김예빈 단원은 “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, 잘못된 정보는 시정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.”라며 바로알림단 활동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.

연임 단원과 활동 기간 늘려 심도 있는 오류 발굴 기대

특히 올해는 더욱 심도 있게 오류를 발굴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~3명 수준이었던 바로알림단 연임 단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, 활동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9개월 반으로 늘려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단원들은 오류 발굴 외에도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누리 소통망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한민국 문화도 홍보한다.

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이번 발대식에서는 최근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영상으로 관심을 끈 프랑스 출신 배우 겸 모델 파비앙 씨가 참석해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.

해문홍 박명순 원장은 “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되는 만큼, 잘못된 정보들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.”라며, “바로알림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문홍은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해외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제14기 발대식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